





가금관련 질병 진단 및 치료, 농가 맞춤 컨설팅까지

민간연구소 최대 연구 및 진단 시설 보유
손영호 소장, HPAI 가금질병 최고 전문가

반석가금진료연구소는 국내 최초 가금 전문 연구소이자 임상병리 실험실을 갖춘 국내 유일무이 가금 전문병원이다. 반석가금진료연구소는 1998년 경기도 이천에서 가금 전문병원으로 첫발을 내디딘 이후 지난 2007년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에 전국 최대규모 가금연구소를 짓고 확장 이전하며, 농가 질병 진료 및 질병 컨설팅, HACCP 컨설팅, 정부 및 학계 연구용역을 위탁 진행하는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국내 가금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반석가금진료연구소 손영호 소장은 가금 질병이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보다 건강한 가금 사육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SI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금 관련 협회들과 협업하여 농가들을 교육하고 방역 및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 유일 민간 가금연구소

반석가금진료연구소

1998년 경기 이천에서 작은 동물병원으로 시작한 반석가금진료연구소는 가금 분야에서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08년 반석가금진료연구소(이하 연구소)를 확장 이전하며 농가들을 위한 농장 질병 진료 및 질병 컨설팅, HACCP 컨설팅부터 정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위탁해 진행하는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같은 성장은 반석가금진료연구소의 120평 최첨단 시설을 갖춘 가금 전문 실험실과 전문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소 인력의 전문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간으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정부 초청 외국 손님들이 견학할 정도의 부검실, 세미나실 등 국내 가금 연구의 전문성을 국내외로 알릴 시설들을 갖췄다.

연구소의 독자적인 실험실은 질병 분석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질병 파악과 해결이 신속해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정확한 질병 분석으로 인해 무차별적이었던 항생제 남용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지금도 반석가금진료연구소의 연구실에서는 국내 가금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과 가금류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1998 • 가금전문 동물병원 개원(경기 이천)
- 2008 • (주)반석LTC 설립 (충북 음성)
HACCP 컨설팅 사업 시작
- 2014 • 가금(닭, 오리) 농가 사육유형별 차단방역 매뉴얼 개발 연구사업(농식품부)
- 2017 • 오리계열회사 (주)다솔 SI 컨설팅 사업
- 2018 • 전라남도 오리사육 및 SI 방역체계개선방안 연구용역
- 2021 • (주)다솔 SI방역 핵심역량 구축 사업
대규모 산란계농장 자율 방역프로그램 개발 연구



위드 'HPAI' 시대 준비할 때

오리 질병 관련 연구 절대 부족, 정부 관심 가져야
HPAI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방역체계 개선 절실

반석가금진료연구소

손영호 소장



반석가금진료연구소 손영호 소장은 국내 가금 질병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1970,80년대 축산업에서 처음으로 산업화를 이룬 양계 산업은 빠른 성장과 산업화를 이뤘지만 그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사양기술 및 관리 등으로 인해 온갖 질병이 창궐했다. 손영호 소장은 자식처럼 키우던 닭들을 질병으로 죽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농가들을 위해 가금 전문 연구소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러한 결심에는 그는 농장의 실정에 맞게 질병 컨설팅이 이뤄진다면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손 소장의 확신은 1998년 반석가금진료연구소 개소로 이어졌고, 개소 이후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금 사육 농가들에 꼭 들어맞는 컨설팅이 지원되면서 사육 농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렇게 아버지가 키우는 육계 농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가금 수의사의 길로 접어든 손 소장은 양계 전문 컨설팅이란 새로운 분야로 양계 업계에 이름을 알리게 됐다.

한국형 SI 발생의 문제점 진단

손영호 소장은 겨울철이면 가금 사육 농가들의 방역 계도 활동은 물론 관련 연구용역 수행 및 정책 제안 등 농가들의 SI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손 소장도 처음부터 SI 관련 사업을 시작했던 것은 아니다.

손 소장은 “2014년 영암에 컨설팅을 나갔다가 SI 발생 소식을 들었다. SI 발생 농장에서 역학조사를 하다 위기감이 느껴져 농식품부에 SI 발생 원인 분석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 그렇게 SI에 뛰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그간 국내 최고 가금 전문 수의 기업으로 인정받아온 손 소장의 제안은 받아들여졌다. 손 소장은 두 달간의 현장 집중 분석을 통해 한국형 SI 발생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해 냈고 이와 관련한 정부 과제를 진행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며 SI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한국오리협회 지회지부간담회 방역 교육

이렇듯 국내 최고 가금 전문가로 꼽히는 손 소장은 SI는 오리에 치명적인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리 산업 전반에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오리 농가 절대 불리, 정책적 지원 필요

오리 농가는 축산업 중에서도 가장 늦게 출발하다 보니 모든 게 부족하다는 것이 손 소장의 지적이다.

그는 “오리 농가들은 다른 축종과 달리 출발선이 달랐다. 양계나 양돈의 경우 개인 농가들이 먼저 시작했고 나중에 계열화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 농가들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오리 농가들은 계열화가 먼저 시작됐다”며 이는 이미 대학생이나 성인이 된 사람들과 초등학교생을 동일 선상에서 경쟁을 시키는 꼴이며 현재 오리 농가들이 처한 현실로 똑같은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오리 농가에 절대 불리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의 오리 농가들이 비닐하우스 축사에서 오리를 키우며 현대화된 축사에 투자를 못 하는 이유라며 출발선이 늦은 만큼 타 축종과 비교하지 말고 오리 농가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 소장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성장해온 오리 산업의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리 농가들이 대부분 비닐하우스 축사에서 오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는 현대화된 축사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지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 양계, 양돈 농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 대책이 있었던 것처럼 오리 농가들에게도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기회를 줘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 현장의 목소리 들어야

반석가금진료연구소는 현재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SI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고, 개별 농가에 대한 가금 컨설팅 및 책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왕진으로 가금류들을 진료하기도 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농장의 가금류를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주요학력 및 경력

수의학 박사(조류질병학)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생명·의료분야)전문위원
 식품안전정책위원회(축산물 전문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위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위원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 역임

것도 연구소의 일이다.

대한민국 가금 산업의 기반을 다진다는 자부심을 안고 국내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뛰어온 손영호 소장은 이제껏 해왔던 정부의 연구과제 수행 등 연구소가 해온 일들이 민간연구소가 감당해 오기에는 다소 버거운 일이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시와 같은 전염성 질병에서 특히 더 그렇다.

손 소장은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민간이 특정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가 가축 질병 방역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역 업무 전문 수의사 육성도 요구된다고 전했다.

오리농가 질병 예방 어렵지 않다

손영호 소장은 “오리계열회사(주)다솔 농가 시 방역 교육을 진행하다가 시 방역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 시에 걸린 오리는 증상이 거의 없다 보니 농가도 계열사도 쉽게 알 수 없다, 농가에서 해야 할 방역과 계열사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방역프로그램을 배포해 체계적인 시 방역을 꾀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사적 방역 프로그램은 각기 다른 환경을 가진 농장들과 계열사에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확장성을 가진 프로그램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위드 HPAI도 가능하다

HPAI는 오리에게 위협적인 질병이 절대 아니다. 그동안 발생 사례들을 살펴보면 오리의 경우 감염되더라도 폐사가 많지 않고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문에 오리에게 있어서 고병원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다른 축산업 전체를 보면 양계산업과도 공존해야 하므로 오리업계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방역대책에 따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손영호 소장은 “최근 코로나 19 사태를 살펴보면 HPAI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초라한지 알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가 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사람보다 많다고 한다. 그런데 HPAI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20년간 2천여 명에 불과하다. 그간 HPAI에 대한 우려는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런데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던 코로나와 달리 HPAI는 인간이 대처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확보돼 있다”며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HPAI를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손 소장은 “HPAI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한다면 HPAI 대책도 변화될 수 있다. 전 세계를 이동하는 철새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HPAI의 근절은 요원할 것이다. 때문에 위드 코로나와 같이 위드 HPAI도 절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위드 HPAI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